

E1, LPG 공급가격 동결

LPG 수입·판매기업 E1은 9월 LPG 공급가격을 8월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8월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석이 있는 9월 LPG 판매가격은 8월 가격인 프로판가스 kg당 1239.4원, 부탄가스 1625원을 유지하게 됐다.

E1은 “9월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8월 국제 LPG가격이 인상됐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호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자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PG는 사우디의 국영 석유기업 Aramco가 매월 한 차례 확정하는 공급가격 그대로 국제 LPG 가격으로 통용되는 가격결정 구조로 되어 있다.

<화학저널 2012/08/31>